

# “00팀은 보건소로 응소바랍니다”... 직원들 하소연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행정직원들 소집알림 “인력 좀 늘려달라” “정신적으로 힘들다” 호소 김현덕 시의원 “기간제 채용해 부담 덜어줘야”

양정선 기자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방역으로 현장 인력들은 업무량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제발 사람 좀 뽑아달라’며 곡소리를 할 정도다. 예컨대 전주시의 경우 보건소 인력 부족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역학조사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업무를 보다가도 소집 알림이 울리면

보건소로 가야한다. 이 시간 동안 못한 일은 잔업이 된다.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소집 알림이 울리는 통에 ‘월 권리도 잃은 지 오래다’.

전주시 공무원 A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역학조사 호출에 체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며 “특히 주말과 휴일도 없이 언제 부름을 받아 투입될지 모른다는 압박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한탄은 역학조사팀 호출을 위해

만들어진 그룹 채팅방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휴가도 못가고 있다” “사람을 늘려 달라” 등이다. 급기야 한 직원은 “주중에는 1팀부터 주말에는 역순으로 호출하는 게 어떨까”며 자발적으로 찬·반 투표를 올리기도 했다.

공무원 A씨는 “시에서 정원을 만들고 책을 구입하는 곳에 쓰는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기간제 인력을 뽑아 이를 역학조사에 투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것 같다”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간제 채용은 어렵다”며 “기간제를 채용한 다른 시도에서도 역학조사에 이들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고민이 많다. 만약 인원충원을 한다면 다른 직원들을 더 투입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 김현덕(삼천1·2·3동)의원은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볼게다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본청 역학조사팀을 확진자 1명당 1팀씩 4명, 총 40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7일)와 같이 4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때는 이 팀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걱정이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유출 등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기간제 채용을 통한 업무 순환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북교육청, 방역활동도우미 연장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 방역활동도우미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방역활동도우미는 2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계속되면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 방역활동도우미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각 학교에 배정된 방역활동도우미는 958명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8억5,000여만 원이다. 학교 방역활동도우미는 발열체크,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안내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겨울방학 전까지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 캠틱종합기술원,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전주의 구골’로 각광받는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티)이 9일 ‘2021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창업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내걸고 전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캠틱과 스타트업들이 그 동안 이룬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다. 총 2부로 나눠 특강과 포럼,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김달승 브랜드파이 대표의 ‘2022년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주제 발표와 기술 세미나가 진행된다. 또 김승환 평택대(피어선칼리지 창업융합 전공)교수가 나와 ‘2022년 ESG로 준비하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창업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가 포인트다. 캠티가 집중하고 있는 IT, 바이오엘스, 드론, 스마트팜, AI 등 관련 기술과 제품 30여점이 전시된다. R&D 혁신사례(블루스)와 지역주도형 우수사례(엘바이오, 초코빈)도 발표한다.

지난 9월부터 개최해 온 J포럼도 이날 올해 마지막 강사가 열린다. 글로벌 창업투자회사 ‘스파크랩’의 이희윤 이사가 ‘엑셀러이터의 눈으로 바라 본 투자’를 강의한다.

노상훈 캠틱종합기술원장은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탄 젊고 열정적인 스타트업들의 비상을 기원할 것”이라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 서거석 “융복합교육 활성화 해야”

8일 김제 원평초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교실’ 열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출마예정자는 8일 김제원평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교실’을 열고 “전북도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우주탐사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체험한 이날 행사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본부장 서거석)가 주관·주최로 진행됐다.

서 출마예정자는 “이번 과학교실은 공감, 소통, 공유, 협력 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인공지능 교육 강화 △SW-AI 교육 중점 학교 지정 △SW융합 학생 자율 동아리 지원 △분야별 융복합미래교육 전문교사 양성 △시자체 협

력사업으로 지역별 융복합미래교육 센터 개설 등 5대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별 AI 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간 인공지능 관련 교육 시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이 연간 78.8 시간인데 비해 전북은 21.7 시간에 불과했다. 또 중학교는 대구가 연간 54.5 시간이었으며 전북은 37.5 시간으로 조사됐다.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안 공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 민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현철 기자

##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전주사람, 간편 기부문화 확산 위해 QR기부 시스템 도입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8일 간편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QR코드 기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부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기부링크(URL)를 클릭하면 관련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대면으로 이뤄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는 물론, 쉽고 빠르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QR코드는 전주사람 홈페이지(www.jjwf.or.kr)나 동 주민센터, 전주시 SN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의료·주거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병관 이사장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주시민 여럿의 힘이 합쳐지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QR코드를 통한 기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사람은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0년간 1004만 원을 후원하는 ‘희망천사’ △1년간 100만 원을 후원하는 ‘백만천사’ △매월 1만1004원을 후원하는 ‘기부천사’ 등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 전북도교육청, 4급 승진자 확정

조철호, 최정애, 이일상 3명 선발

전북도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승진 대상자는 조철호 전북교육연수원 총무과장, 최정애 전북교육청 재무과 팀장, 이일상 전북학생수련원 총무과장 등 3명이다.

도교육청은 역량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승진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역량평가를 도입했다. 평가는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통해 서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전략적 사고, 변화관리, 조정·통합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위원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공현철 기자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